

# 비수도권 통과율 높아져...광주·전남 현안사업 탄력 받는다

## '예타' 20년만에 대폭 개편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사업(예타) 대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 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동안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지역일수록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의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수도권, 영남권 중심으로 SOC가 추가 설치되면서 지역불균형이 심해질 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지역 인구 유출, 낙후 등의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남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속철도, 도로 등의 개설이 늦춰지면서 풍부한 자원을 갖췄지만 지역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정부의 이번 예타 개편이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내총생산(GRDP) 등의 지표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국가재정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예타 탈락을 우려해 지역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권과 지방 예타 평가 달리해-광역시 감점도 없애-이번 예타 개편은 1999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된다. 예타는 초기엔 경제성 분석

비수도권 경제성 비율 30%로

광역시 감점 없애 역차별 해소

경제논리에 심화된 국토불균형

국가재정 낙후지역 집중해야

위주였다가 2003년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하며 정책성 분석을 시작했고, 2006년에는 지역균형발전도 평가 요소로 들어갔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으로 낙후지역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종합평가에서 경제성의 배점 비율이 35~50%인데 비수도권은 30~45%로 낮추고, 수도권은 60~70%로 높이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배점 비율은 현행 25~35%인데 비수도권은 30~40%로 상향조정된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배점이 없어진다.

비수도권은 특점이 어려운 경제성 평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합격'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거점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예타에서는 대구·대전·부산·울산·광주 등 광역시를 중

심으로 비수도권 36개 지역에는 지역균형평가의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감점을 적용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광역시는 일종의 역차별을 받은 셈이다.

종합평가 때 경제성(35~50%)·정책성(25~40%)·지역균형발전(25~35%) 등 부분별 배점은 수도권과 동일하다. 지역균형발전의 세부 항목인 지역낙후도에서 감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낙후지역에 집중해야, 균형발전이 미래 가치-예타 제도 개편과 함께 그동안 경제 논리에 심화된 국토 불균형 발전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기반 미비-인구 감소-지역낙후-인구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예타 개편으로 광주는 ▲빛그린산단 진입도로개설(사업비 640억원) ▲전환경 공기업육성 프로젝트(3500억원) 등 2건, 전남은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1조7055억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1154억원)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2578억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1606억원) ▲고기능성 특수탄소소재 산업고도화사업(748억원) 등의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설명회가 3일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절골마을 앞에서 열려 민간사업자들이 시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3차 공모 현장 설명회 사업자 수익성 개선...20여개 기업 참여 북적

신탁사·건설업체 문의 쇄도

6월21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13년 간 지지부진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부어지면서 지역 기업을 비롯한 국내 유명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차 공모에서 일부 업체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업을 반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건설한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산구 운수동(절골마을)에서 열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 제안 공모 관련 현장 설명회에 20여 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내 신탁사에서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와 지역 건설사 등이 다양하게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투자 대상지 어등산의 지형적 개발여건 등을 사업자에게 공개한 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앞서 광주시청 담당 부서에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신탁사, 건설업체들이 전화로 공모 내용 등을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차 공모에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는 1·2차 공모와 달리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644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상가시설 부지의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80%로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594억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2차 공모 당시 기준, 상가의 1층 분양가는 평당 1600만원, 2층 900만원, 3층 600만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번 공모에선 건폐율이 커지면서 상가시설을 단층에 배치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594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개발이익 사회환원 평가부분 점수별 환원 금액도 2차 공모 당시 100억원이상

(50점 만점)에서 3차는 50억원(50점 만점)으로 줄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50억원 줄였다.

특히 이번 3차 공모에서는 토지가격 기준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공모에서는 편차가 200점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준선을 100점으로 했다.

토지가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업체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거 공모 때와 달리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상가 분양 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건설한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3개월 간의 공모 기간을 거친 뒤 6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제출은 설명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어 6월말께 우선협상 심의 평가를 거친 뒤 9월 협약체결, 12월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

## 곧 시들어 버릴 화려함, 헛된꿈을 꾸짖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2) 튜립

플라톤적으로 생각하자면, 내게 있어 꽃의 아이디어는 튜립이다. 꽃의 아이디어, 즉 꽃의 이상적 형상 혹은 꽃 자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을 그릴 때면 장미도 목련도 아니고 꼭 튜립이 등장한다는 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과 함께 찾아온 튜립 축제 소식이 반갑다. 메마른 대지에서 피어난 튜립은 기적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예쁜 꽃이 예고도 없이 땅에서 싹을 솟아나다니 황홀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다.

17세기 황금시대 네덜란드인에게 부와 호사 취미의 상징이었던 튜립이 투기

광풍으로까지 이어진 황당한 역사적 사건이 이해가 될 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는 꽃의 아름다움에 반했지만 나중에는 때론 벌 수 있다는 투기 심리로 가난한 사람들과도 최상급 튜립 구근 한 개를 사기 위해 빚을 내어 투자했다니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 일확천금의 헛된 꿈은 부질없고 허망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사실도.

당시 네덜란드에서 렉서리의 극치였고 역사상 최초의 거품경제 현상을 가져 온 튜립은 그림으로도 인기였다. 정물화 중에서도 꽃 정물화라는 장르를 정착시킨 화가 암브로시우스 보스카르트(1573-1621)의 '중국 도자기 꽃병의 튜립'(1619년 경)은 튜립의 가지적 성질을 명료하고 짙은 관찰을 통해 감탄스러운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특히 튜립을 투명한 유리병이나 고급스러운 중국 도자기에 꽃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는데, 화병 속 튜립이 화



암브로시우스 보스카르트 작 '중국 도자기 꽃병의 튜립'

려함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 같다. 활짝 피어 아름다움의 절정을 자랑하는 꽃의 자태는 역설적으로 곧 시들어버릴 운명을 예고한다. 이 튜립 그림 역시 인간사 부귀영화의 헛됨을 경계하는 '바니타스' 장르의 교훈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미술사박사>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 무안 ↔ 기타큐슈 살랑~살랑 봄꽃 가득한 4,5월에 떠나요♥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항공 매주 화/금/일 출발

오후출발(화,금,일)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2:30) → 무안(23:4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3일 [정통] 499,000원~ / [풍격] 62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4일 [정통] 699,000원~ / [풍격] 759,000원

**무안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패키지!!**

기타큐슈 / 오이타 / 오사카 / 동경 / 다낭 / 방콕 / 세부 / 코타키나발루 / 보라카이 / 대만 / 마카오 / 상해 / 블라디보스톡 / 몽골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1522-1901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두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정통] 집중모객 4/11, 21, 5/12, 19 출발 동경&하코네 3일 취항특가!! 6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봄꽃 가득**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89,000원~

\*예약시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안 ↔ 몽골 드넓은 대초원, 그리고 밤하늘 별**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부산출항 ↔ 대마도 매일출발**

[4월 ~ 5월 대마도 매일 출발]

- ◆ 오션플라워 부산출항 1박 2일 1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 [고풍격]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99,000원~

**무안 ↔ 방콕·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목(3박5일) / 토,일(4박6일)]

- ◆ [실속] 599,000원~ ◆ [풍격] 84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3박4일

[바나팍] 599,000원~ / [후에풍격] 699,000원~

[노팁&노음선] 84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수,금요일 출발] 3박5일 879,000원~

[월,수,토요일 출발] 2박4일 5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현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교통: 여행객 1인 기준, 여행정보를 기입(여행상품: 1인원, 국내선항공 5인원만), 관광진흥법기입금, 관광 및 부수 비용, 유틸리티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 기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리,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